



중동 전쟁 직격탄 제주관광 ‘노심초사’

최근 석달 관광객 감소... 외국인 증가폭도 축소
유류할증료 상승 따른 여행 비용 부담 커진 영향
관광업계 “본격 휴가철 맞아 가족단위 여행 기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 7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항공료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고 항공사 공급좌석도 감소하면서 덩달아 항공요금도 올라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이 다소 축소돼 향후 유류할증료 인하와 지난해보다 감소한 항공 좌석 회복 여부가 제주 관광 수요 회복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 방문 관광객(잠정)은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3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 5월(-3.7%), 6월(-7.6%)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국인 관광객은 96만3000명으로

로 5.2%(5만3000명) 줄었다. 다만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5월(-7.1%)과 6월(-11.5%)에 비해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시기에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장에서 뚜렷하게 체감됐다”며 “하지만 최근 할증료가 소폭 내리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1만4000명) 늘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1월 14.7%를 시작으로 2월 37.2%, 3월 29.3%, 4월 20.4%, 5월 12.6% 등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6월 9.1%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7월에



최근 석달 연속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라일보 DB

도 문화 흐름이 이어졌다.

외국인 증가세 둔화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과 크루즈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까지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3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명)보다 17.3%(8만명) 감소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에 중국이 반발하는 등 중·일 관계 경색으로 제주에

기향하는 크루즈 경유지에서 일본이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1~7월 제주 방문 누적 관광객은 79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37만3000명) 증가했다. 내국인은 651만5000명으로 2.7%(17만1000명), 외국인은 146만8000명으로 15.9%(20만1000명) 각각 늘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 잇따라

지난 주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2명 숨져

최고체감기온이 35℃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물놀이 사망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22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보목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50대가 바다에 빠져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14분쯤 제주시 구좌읍 코난해변에서 물놀이하

던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오전 9시43분쯤 서귀포시 문섬 해상에서 40대 미국인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숨졌다.

위령석기자 yswi1968@ihalla.com

구명조끼 미착용 조업 어선 2척 적발

해경, 항공순찰 중 적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적발된 첫 사례”

지난 달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던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제주항공대 헬기가 애월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8시56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애월 선적 3t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B씨를 적발했다.

6분 뒤에는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1.7t급 연안복합어선 C호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선원 D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은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시행 이후 제주에서의 첫 사례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항공순찰 중 확인한 위반사항을 상황실과 함정·파출소가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며 “구명조끼는 위기의 순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인 만큼 외부 갑판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령석기자

“금어기 끝나간다”

이달 참조기 조업 본격
도내 어가 향후 어황 촉각

참조기 금어기가 종료되면서 추자도 연근해와 소흑산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조업이 8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참조기 금어기는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참조기 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조치다.

금어기 기간 유자망 어선들은 오징어, 고등어 등 다른 어종으로 대체 조업을 이어왔으며 8월 초부터는 어구 교체와 어선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참조기 조업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봄철 참조기 어황이 좋았던 만큼 8월에도 계속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원에 물 뿌리는 호텔 폭염이 이어진 3일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한 호텔 정원에서 직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내 유자망 어가는 지난 2016년 100척에서 113척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 기준 참조기 위판 실적도 265t, 70억9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t, 44억318만원에 비해

위판량은 16%, 위판액은 59% 증가했다.

제주시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참조기 어황이 좋았고, 조업 여건도 양호해 어판량도 증가하면

서 금어기 해제 이후 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경쟁 조업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위령석기자

제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는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임산부의 높은 만족도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제주시

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지속 추진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가 추가 반영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임산부와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시 거주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해당된다.

위령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와이덱스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화북

무료주차 가능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등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